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시점 2024. 7.18.(목) 11:00 배포 2024. 7.18.(목) 11:00

# 행복청, 대통령 제2집무실 설계공모 준비 본격 착수

- 대통령실 등 관계기관과 합동 착수보고회 개최 -

행복청(청장 김형렬)은 '행복도시 국가상징구역 도시건축 통합설계 국제공모 관리용역' 착수보고회를 7월 19일(금) 개최한다고 밝혔다.

이번 용역은 대통령 제2집무실 건축설계와 국가상징구역(세종특별자치시 세종동 약 210만㎡)의 도시설계에 대한 통합설계 국제공모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 6월 말 착수한 것이다.

* (관리용역수행사) 한국건축가협회 (과업기간) '24.6~'25.4 (용역금액) 448백만원

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은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, 이번 착수보고회는 수요기관인 대통령실(총무비서관실)이 직접 참여하여 완성도 높은 계획을 위한 의견을 나누는 등 정부의 강한 추진 의지를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.

행복청은 이번 착수보고를 통해 관리용역 수행사로부터 공모 추진체계 마련, 국내외 사례분석 등을 통한 공모 추진방안 마련 등 향후 과업 수행계획에 대해 보고받는다고 밝혔다.

김형렬 행복청장은 "정부의 강한 사업 추진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"이라며, "국가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"라고 말했다.



| 담당 부서 | 시설사업국 집무실건립추진단 | 책임자 | 과 장 | 이승은 | (044-200-3352)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담당자 | 사무관 | 한다송 | (044-200-3365)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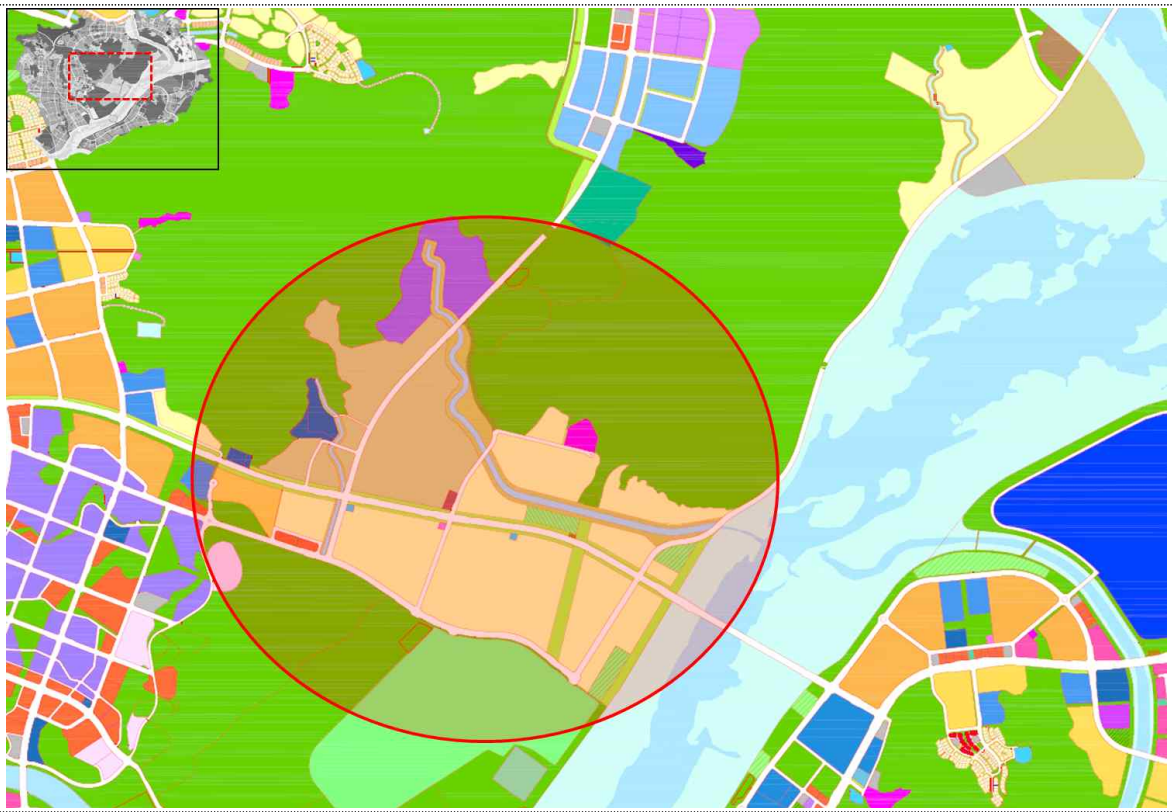
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**참고** **국제공모 대상 부지 관련**



‘행복도시 국가상징구역 도시건축 통합설계 국제공모’ 대상이 될 국가상징구역(안)

국가상징구역(안)의 항공정사영상(사진)